

보험 M&A 큰장 섰다... 2조대 푸르덴셜, 더K손보도

푸르덴셜생명, 매각가 2조 추정
KB·우리금융 등 인수전 전망

더케이손보, 하나금융에 안길 듯
가격 협의엔 연내인수 가능성도



푸르덴셜생명 사옥 전경. /푸르덴셜생명

푸르덴셜생명, 더케이손해보험 등 매력적인 매물이 인수합병(M&A) 시장에 나왔다. 그동안 국내 보험사 M&A 시장은 단골 매물 후보로 떠오르던 KDB생명, 동양생명, ABL생명, MG손해보험 등의 매력도가 낮아 지지부진했다. 그러나 알짜배기 매물의 등장으로 활기를 띠 전망이다. 잠재적 인수자로 꼽히는 KB금융, 하나금융, 우리금융 등 금융지주를 중심으로 보험업계 판도에 변화가 예상된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미국 푸르덴셜라이낸셜은 한국 푸르덴셜생명 매각주관사로 골드만삭스로 선정해 매

각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골드만삭스는 KB금융, 우리금융 등 주요 금융지주와 대형 사모펀드(PEF)들에 투자안내서(티저레터)를 발송하며 본격적으로 인수자 찾기에 나섰다.

푸르덴셜라이낸셜은 푸르덴셜 인터내셔널 인슈어런스 홀딩스를 통해 푸르덴셜생명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내년이면 한국 진출 30년을 맞는 푸르덴셜생명의 매각은 미국 본사인 푸르덴셜라이낸셜의 재무 상태 때문에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푸르덴셜생명은 규모만 보면 중소형 외국계 생명보험사에 불과하지만 안정적인 수익성과 재무건전성을 보유한 '알짜' 매물로 평가된다. 푸르덴셜생명의 올해 3분기 기준 총자산 20조8133억원으로 생보업계 11위지만 당기순이익은 1465억원으로 6위다. 보험사의 자산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급여력(RBC)비율은 515%로 생보사 중 가장 높다.

또 푸르덴셜생명은 국내 시장에 진출했을 때부터 저축성보다는 보장성 위주의 상품을 팔아왔기 때문에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에 대한 부담이 적은

점도 강점으로 꼽힌다.

매각가는 2조원 안팎으로 추정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KB금융지주와 우리금융지주, 대형 사모펀드(PEF)가 인수전에 뛰어들 것으로 전망한다. KB금융지주는 KB생명을 키울 필요가 있고, 올해 초 금융지주사로 재출범한 우리금융지주는 생보사가 없다.

지난 10월 M&A 시장에 매물로 나온 더케이손보는 하나금융지주 품에 안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하나금융은 최근 자체적으로 가상데이터를 활용한 실사를 마치고 교직원공제회와 협상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직원공제회는 더케이손보의 최대 주주로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교직원공제회는 매각주관사로 삼정 KPMG를 선정했다. 법률 자문은 법무법인 광장이 맡는다.

더케이손보는 영업 규모는 크지 않지만 교직원이라는 안정적인 고객들을 중

심으로 양질의 계약을 보유하고 있다. 더케이손보는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원수보험료 4714억8577만원 중 자동차보험 비중은 3067억1029만원으로 종합손해보험사지만 자동차보험이 주력이다.

특히 종합손해보험 판매 라이선스가 없는 금융지주들에게 있어 충분히 매력적인 매물이다. 지금까지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밝힌 곳은 하나금융이 유일하다. 하나금융은 지난해 말 하나손해보험에 대한 상표등록을 마쳤다. 가격만 협의가 된다면 연내 인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더케이손보 매각가는 1500억원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M&A 시장에서 많은 매물이 거론됐지만 매력도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라며 "최근 괜찮은 매물들이 나오면서 국내 금융지주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매각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희주 기자 hj89@metroseoul.co.kr



5일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 DMCT타워에서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최종평가가 진행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국민배심원 앞에서 강소기업 기술 과시

'강소기업 100' 최종선정 현장
3단계 평가 통과 80개 기업 참가 선정엔 기업당 최대 182억 지원

"미국이 무화염 촉매 열산화 소각설비(FCTO) 등의 규제를 강화하면서 이를 만족하는 기술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자사가 미국환경보호청(EPA) 규정을 만족하는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하면서 세계적으로 저회 장비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5일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DMCT타워에는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최종 선정 대국민 평가가 한창이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반도체-디스플레이용 무화염 촉매 방식 가스 스크리버를 만드는 엠에이티플러스의 김동수 대표가 선정심사위원과 국민심사배심원 앞에서 회사의 기술과 비전을 발표했다.

발표는 공개발표와 질의응답 10분씩 각 기업에 총 20분이 주어졌다. 발표 시간이 3분, 1분 남았을 때 알람음이 울렸다. 다소 긴장한 듯한 김동수 대표의 말이 빨라졌지만, 약 15초를 남기고 무사히 준비한 발표를 마쳤다.

심사위원단은 자료에 필기하는 등 발표 내용을 꼼꼼히 확인했다. 발표 후 선정심사위원의 날카로운 질문도 오갔다. 반도체 분과 선정심사위원으로 참석한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은 "전체 매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22%로 꽤 적네요?"라고 묻자 김동수 대표는 "전체 매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부분은 90% 정도"라며 자료 오류 사항을 사과했다.

디스플레이 분과에 참가한 양병태 이코니 대표는 발표 말미에 "대기업에서 벗어나 독보적인 기술을 가진 강소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분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의 의미를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진행된 최종평가에는 서면평가와 현장평가 및 기술평가, 심층평가 3단계를 통과한 80개 기업이 참가했다. 최종평가는 ▲기계금속 ▲기초화학 ▲디스플레이 ▲반도체 ▲자동차 ▲전기전자1 ▲전기전자2 등 7개 분과로 나누어 진행됐다.

이번 강소기업 선정은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신산업과 연관성이 높고, 개발이 시급한 소재·부품·장비 기술의 혁신을 이를 중소기업에 발굴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강소기업으로 뽑힌 기업은 향후 5년간 30개 사업으로 기술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전 주기에 걸쳐 기업당 최대 182억원의 지원을 받는다.

강소기업 선정을 주관한 기술보증기금의 박주현 기술평가부 차장은 "강소기업 100 선정 기업은 이달 내로 발표할 예정이며 오늘 참가한 기업의 50~60% 정도가 최종 선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한님 기자 ericabae1683@

“회계감사 과다수임 안돼... 감사품질 높여야”

‘신외감법’ 시행 3년차 기자세미나
최종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감사인 ‘갑질’ 적발엔 영구퇴출”

신외감법(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시행 3년 차에 접어든 현재 지정감사제, 표준감사시간제 등 회계개혁이 마무리 단계다. 외감법 시행을 주도했던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회계 품질 제고에 역량을 쏟기로 했다. 회계법인이 과다수임으로 감사 품질을 떨어뜨리지 않는 지, 표준감사시간제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 지 등을 감독할 계획이다.

최종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세미나에서 “한국의 회계개혁은 불분명해 서도 보도하고, 글로벌 빅4회계법인 대표들 모두 잘되고 있다고 평가했다”면서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회장은 “현재 시점에서 회계개혁 성공 위해선 회계감사 품질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품질확보의 첫걸음으로 회계법인의 과다수임 여부를 집중 점검할 것”이라고 했다.

◆“과다수임 억제, 일감 정리해야”



지난 4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한국공인회계사회 기자세미나에서 최종경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최 회장은 “올해 내부회계 관리제도, 지정 감사 등이 시행됐다”면서 “회계법인들은 역량을 초과하는 일감을 받았는지 스스로 성찰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그는 “(일감이 많다면) 과다수임 억제를 위해서 새로운 회계사를 스카우트(영입)하는 것보다 각자 역량에 맞춰 일감을 정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과다수임 억제는 결국 역량을 갖춘 회계사들이 골고루 일감을 갖게 돼 ‘상생’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중소회계법인으로 일감이 전달되는 장점도 있다.

최 회장은 “상위 회계법인이 과다수임을 하는 것에 대해 깊게 들여다보고, 이들이 과다수임을 하지 않으면 중소회계법인에 일감이 갈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회사 재무제표 작성 업무를 외부 전문가에게 맡기는 ‘프라이빗 어카운턴트’ 시장을 활성화하면 중소법인들에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과다수임을 감독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도 밝혔다. 회계법인에 속한 회계사 수에 일반적인 근무시간을 곱해 총 감사 시간을 구해보는 것이다.

최 회장은 “100명의 회계사가 있다면 이들이 300일 동안 30만 시간(하루 10시간)을 일한다고 가정한다. 그러면 감사 계약과 표준감사 시간을 비교해 30만 시간을 초과했는지 확인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감사인 ‘갑질’엔 영구퇴출 고려”

신외감법의 시행으로 회계 품질 제고에 대한 기대는 커지고 있지만 기업들의 고충은 늘어나고 있다. 지정 감사제, 표준감사시간제 도입으로 회계법인이 과도한 감사비를 청구하는 등 ‘갑질’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

이에 대해 최 회장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가 갑질을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표준감사시간,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시행 과정에서 감사인의 ‘갑질’ 등 부적절한 행위와 위법 행위가 있으면 검찰 고발 등 강력 조치를 통해 탈선 감사인을 영구퇴출 시키겠다”고 말했다. /손영지 기자 sonumji301@

10월 경상수지 흑자 1년만에 최대치

반도체 부진에 수출은 14.5% 감소

10월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78억3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6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 흑자폭은 1년 만에 최대치였다. 다만 반도체 부진 여파로 수출이 14.5% 감소했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2019년 10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10월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78억3000만달러로 지난

5월부터 6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흑자폭은 지난해 10월(93억5000만달러) 이후 1년 만에 가장 컸다.

다만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1년 전(94억7000만달러)보다 16억4000만달러(17.4%) 줄었다.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와 석유화학제품 가격 하락에 수출이 수입보다 더 많이 줄어들면서 상품수지 흑자가 축소된 영향이다. 상품수지 흑자는 80억3000만달러로 지난해 10



월(105억2000만달러)보다 흑자폭이 24억9000만달러(23.7%) 줄었다. /김희주 기자